

한국 신화에 나타난 죽음 사건과 그 의미*

-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를 대상으로

김신정**

<차례>

1. 서론
2. 신화 속 죽음 사건의 양상
3. 신화 속 삶과 죽음의 구성원리와 그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스틱스강이 흐르며 이 강을 이동하는 뱃사공 카론만이 이승과 저승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카론은 스틱스강 안에 멈춰있는 존재이다. 반면 한국 신화에서 신적 존재들은 경계를 이월(移越)하는 자들로서 이승과 저승을 이동한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리공주>의 바리와 <차사본풀이>의 강림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들의 모험과 이계 여행을 대상으로 신화적 의미와 저승 의식을 고찰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신화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죽음 사건의 양상과 죽음 사건 간의 관계 즉 인간적 죽음과 이를 해결하려는 신적 죽음의 교차를 통해 한국 신화의 죽음관을 고찰하였다. 신화적 세계 속 인간적 죽음은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이자 성장을 위한 관문이다. 반면 신적 죽음은 인간적 죽음의 원인을 살피고 문제로서의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자 신이 되기 위한 존재론적 변화의 계기이다.

구체적으로, 무속 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나 삶과 죽음이라는 사건이 구성되는 원리에 '정의' 관념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의 살아 생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옳은 행동을 해야 하며 개인의 욕심으로 타인을

* 이 논문은 2021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해하는 경우 죽음으로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신화 속 삶과 죽음은 인과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이루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속 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에 나타난 징후적 죽음, 수단적 죽음, 폭력적 죽음, 징벌적 죽음 그리고 환생의 순환 구조는 무속 신화의 세계가 다양한 죽음 사건의 발생과 그 관계성을 통해 정의의 기원을 풀어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제어 〈바리공주〉, 〈차사본풀이〉, 다양한 죽음 사건의 발생과 관계, 정의의 기원, 한국신화의 죽음관

1. 서론

일본의 영화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자신의 저서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에서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에 대해, 전자는 죽음이 삶 안에 내재해 있는 반면에 후자는 삶과 죽음이 대립하고 있다¹⁾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야기 문학인 신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신화 속에서 이승과 저승은 각각 다른 신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이지만, 그 사이를 이동하는 다양한 신인(神人)들의 모습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그리스 신화 속 이승과 저승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스틱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신 뱃사공 카론만이 나룻배 한 척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이동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요컨대 한국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승과 저승은 서로 단절된 곳이다.

1)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지수 역,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바다출판사, 2017, 224쪽.

한국 신화 속 이승과 저승의 관계성은 저승으로도 보이고 이승으로도 보이는 특성을 지닌 공간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공간은 서천 꽃밭이다. 그곳에 피어있는 꽃들은 서천 꽃밭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서천 꽃밭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삼승 할망이 씨를 뿌려 만든 곳으로서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꽃도 있고 죽이는 꽃도 있다. 서천 꽃밭의 양가성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창세 신화 속에서 저승을 관장하게 된 미륵의 석가에 대한 저주가 이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신화의 세계 안에서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신화 속 이승과 저승의 흐릿한 경계성은 신화적 세계가 그려내는 삶과 죽음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과 저승을 이동하는 경험을 통해 끝내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하는 존재의 이야기로서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의 경우를 보면, 인간 세계에서 나고 자란 바리와 강림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다가 중국에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한다. 이 경계인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관계 역시 이승과 저승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망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조신인 바리와 저승차사 강림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바리와 강림이 직접 이계(異界)로 여행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이승과 저승의 매개자임을 설명한다. 신화는 곧 신들의 좌정 원리를 보여주는 서사이므로 이 인물들이 저승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게 되는 연유와 이동의 과정을 통해서 저승의 모습과 성격을 그려볼 수 있다. 즉 여행담을 통해 신화의 죽음관과 저승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화들의 서사 안에는 여러 죽음이 존재한다. 그 죽음은 태어남과 동시에 예견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발생하기도 하며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죽음의 양상들 즉 신화의 서사를 추동하는 서사적 요소로서의 ‘죽음 사건’들의 양상과 관계성을 통해 죽음

사건의 구성원리와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를 통해서도 죽음관과 저승관이 라는 신화적 세계관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원오의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1997)²⁾에서는 〈차사본풀이〉유형의 무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이계여행형’무가와 ‘치성차사형’무가로 분류한다. ‘이계여행형’에는 천지왕본풀이, 바리공주, 차사본풀이가 해당되고, ‘치성차사형’에는 장자풀이, 짐가쟁곳이 해당된다. 이계여행무가는 주로 제주도에서 전승되며 신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 중심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치성차사형 무가는 인간의 이해 여하에 따라 신을 이용하는 인간 중심적인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사본풀이형 무가의 저승 및 저승신관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생자와 망자를 위하는 이중적인 사고가 나타남, 둘째, 저승이나 저승신이 모두 현실세계를 반영함, 셋째, 이승에서의 어려움을 저승신의 위력을 빌어 해결함, 넷째, 저승은 질서가 잡힌 곳이고 이승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사고가 나타남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

홍태한의 「서울 진오귀굿 〈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2007)³⁾에서는 진오귀굿의 말미거리가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말미거리〈바리공주〉의 저승관을 고찰한다. 말미거리에서는 바리공주 신격의 입장에서 굿이 진행된다, 바리는 일상적 공간에서 비일상적 공간인 서천서역국으로 이동하면서 무가의 공간을 제약이 없는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바리공주가 구송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살아있을 당시 풀지 못한 한을 풀어주고 망자를 무

2)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巫歌의 構造와 意味」, 『韓國民俗學』 29, 民俗學會, 1997, 223~246쪽.

3) 홍태한, 「서울 진오귀굿〈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05~133쪽.

사히 제약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를 통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진옥의 「〈차사본풀이〉연구-강림의 저승 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2012)⁴⁾에서는 〈차사본풀이〉의 주인공 강림의 저승 여행에 주목하여 여행경로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 형상을 탐색하여 그의 여행이 저승차사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체성의 확인과정임을 고찰하고 있다. 강림의 저승 여행은 미지의 공간이던 저승을 이해 가능한 세계로 만드는 한편, 저승 여행자로서 서로 다른 세계공간을 넘나들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넘어서 일체화된 세계상을 실현한다고 본다.

정제호의 「관북지역〈바리공주〉의 ‘죽음’에 관한 고찰」(2012)⁵⁾에서는 다른 지역의 각편과 차별성을 보이는 관북지역본 바리공주에 나타난 바리공주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이 각편에서 바리가 신이 되지 못하고 죽음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이계여행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천상의 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 즉, 훔쳐서 가져온 잘못이 있다는 점, 셋째,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으나 그러기 위해 천상에서 맺은 인연(남편과 자식)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더불어 바리공주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량선배 청정각시 노래〉와의 기능적 중복으로 인해 신격 좌절 부분이 탈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되 앞서도 밝혔듯이 인물의 이동이 아닌, 죽음 사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무속 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의 주요한 사건인 죽음 사건의 양상과 관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화 속 삶과 죽음의 구성원리와 그 의미가

4) 강진옥, 「〈차사본풀이〉연구-강림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5~36쪽.

5) 정제호, 「관북지역〈바리공주〉의 ‘죽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25, 2012, 7~42쪽.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신화 속 죽음 사건의 양상

철학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유기체의 특징이 되는 신체구조의 파괴” 혹은 “신체적 총체성의 상실”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며, 한 인격체의 삶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⁶⁾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삶의 종말이자 일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죽음은 신화적 세계 안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신화 속 인간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신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간적 죽음을 겪기도 한다. 그 때문에 신화 속 모든 죽음이 생의 종말이자 일회적 사건은 아니다. 신화 속 죽음은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인간적 죽음에 대한 신화 향유층의 정서와 상상력을 반영하기에 우리는 신화 속 죽음을 통해 삶/죽음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과 그 산물이 적응 및 변형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다.

〈바리공주〉의 바리와 〈차사본풀이〉의 강림은 서사의 결말에 이르러 각각 무조신과 저승차사가 된다. 두 신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망자를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 이 두 신화는 바리와 강림이 저승인도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가야만 하는 저승으로의 여정에서 인물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가는 길에 대한 묘사만큼이나 이 신화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죽음 사건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신화 속 죽음 사건은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구인회,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철학탐구』 16,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4, 60~61쪽.

서사학의 개념에서 보자면 서사에서 ‘사건’과 ‘행위’는 서사의 주요한 요소이다. 이때 사건은 구성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⁷⁾으로 구별될 수 있다. 미시적 사건이라 할 보충적 사건도 서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서사의 구성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구성적 사건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의 구성적 사건인 죽음 사건들의 양상과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신화 텍스트의 서사절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⁸⁾〉

1. 어비대왕이 국모로서 길대중전마마를 봉한다.
2. 어비대왕이 무당들을 불러 길흉을 묻는다.
3. 박수 무당은 내년에 혼례를 해야 세자대군을 낳는다고 하였지만 대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혼례를 올린다.
4. 길대중전마마가 첫째 딸을 낳자 어비대왕은 다음엔 세자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5. 길대중전마마가 일곱째 딸을 낳자 어비대왕은 서해 용왕에 진상한다며 옥함을 짜서 그 딸의 이름을 바리공주라 짓고 옥함에 넣어 바다에 버린다.
6. 석가세존이 비리공덕 할미 할아버에게 하늘 아는 자손 바리를 데려다 기르라고 한다.
7. 비리공덕 부부가 옥함을 열어 아기를 안고 돌아서니 초가삼간이 지어져 있었다.
8. 바리가 15세 되던 해 어비대왕 부부가 병이 심하게 들어 무당에게 묻자

7) H.포터 애빗, 우찬제 외 역, “2장. 서사의 정의”,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20, 55쪽.

8) 서울본 『말미(바리公主)』, 1996년 서울 문덕순 구연, 이경하, 『바리공주/바리데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5~141쪽. 이경하에 따르면 서울본에서는 바리공주의 저승신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고 동해안본에서는 바리공주의 여성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이 논의의 목적을 잘 살필 수 있는 대상 텍스트로서 문덕순본(서울본)을 선택하였다. 위의 책, 30~31쪽.

두 부부가 한날 승하한다며 바리공주를 찾으라고 한다.

9. 어비대왕의 꿈에 청의 동자가 나타나 하늘 이는 자손을 내다 버린 죄로 병을 얻은 것이라 하며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면 동해 용왕의 개안주, 서해 용왕의 벽이용, 삼신산 불사약과 무장승의 약려수를 얻어 먹어야 하며 바리공주를 찾으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10. 신하 중 아무도 약을 구하려고 나서는 자가 없자 대왕은 바리공주를 찾으러하고 한 신하가 나서서 바리공주를 찾아오겠다고 한다.
11. 신하는 비리공덕 부부와 바리에게 왕의 표지로서 아기의 배냇저고리를 보여주고 대왕 부부의 생일생시를 알려주고 대왕마마 무명지베고 아기무명지베어 물어들여 바리가 왕의 딸임을 확인시킨다.
12. 바리공주는 부모를 만나 부모님 복중에 있었던 효로 부모 효양을 가졌다고 하며 옷과 무쇠신 등을 달라고 한다.
13. 바리공주는 약려수를 찾아가는 중에 석가세존을 만나 낭화와 금주령(금지팡이)를 받는다.
14. 바리공주는 가는 길에 지옥을 지나가게 되는데, 죄인들을 만나 지옥에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어 극락으로 가길 기도한다.
15. 바리공주는 약속 삼천리에 다다라 금지팡이를 던지자 무지개가 생겨 그것을 타고 건너가서 무장승을 만난다.
16.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자신을 왕의 아들이라 속이고 약려수를 얻으러 왔다고 하고, 무장승은 그 값으로 나무 삼 년 하고 불 삼 년 때고, 물 삼 년 걷는 일을 하라고 한다.
17. 9년이 지나 무장승은 바리공주에게 혼인하여 일곱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다.
18. 바리공주는 일곱 아들을 낳은 후 부모님이 승하한 것 같다고 부모 효양을 하러 바빠 가야할 것 같다고 하자 무장승은 바리가 그동안 길은 물이 약려수이고 뒷동산 후원 안에 사람을 살리는 꽃이 있다고 알려준다.
19. 바리공주는 무장승과 아들들을 모두 이끌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상여를 보게 되고 대왕 부부가 한날한시에 승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 바리공주는 약려수, 개안주, 벽이용으로 부모를 살린다.
21. 어비대왕이 바리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자 싫다고 하며 부모 효양 갔다가 혼인하고 자식을 낳은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
22. 어비대왕은 무장승과 일곱 아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바리공덕 부부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23. 바리공주 일곱 아들은 저승에 십대왕이 되고 바리공주는 인도국왕 보살이 된다.

〈차사본풀이〉⁹⁾

1. 동경국의 버무왕이 칠형제를 낳았는데 위로 사형제는 잘살고 아래 삼형제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15세에 죽을 운명이다.
2. 동관음사 대사중이 소사중을 불러서 자신이 죽거든 동경국에 내려가 버무왕 삼형제를 법당에 데려다가 법당 공양을 시켜 15세의 명과 복을 이어주고, 너는 대사가 되고 삼형제는 소사를 삼아 법당을 공양하라고 한다.
3. 소사중은 동경국 버무왕을 만나 버무왕이 사주를 봐달라는 말에 아래 삼형제가 15세에 명이 끝난다고 말하고 버무왕의 부탁을 받아 명과 복을 이어주기로 한다.
4. 삼형제는 머리를 깎고 소사중의 뒤를 따라 동관음 상주사에 가서 삼 년 동안 불공을 드리며 살아간다.
5. 삼형제는 가족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대사님께 가족을 보고 오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는다.
6. 대사님은 고향에 갔다 오되 광양땅을 조심하여 지나가라고 하며 조심하지 않으면 법당공양한 것이 무공허사가 된다고 한다.

9) 「차사본풀이」,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29: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108~171쪽. 본문에 정리한 내용은 안사인본을 대상으로 요약한 서사절이다. 다른 각편과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주본에서는 버무왕 삼형제가 인간세상에서 세 번 죽어 환생을 하여야 없던 명과 없던 복이 생긴다고 서술되어 있다. 김해춘본에서는 버무왕 삼형제가 부모님을 떠나 팔도구경을 하며 고행을 해야 명이 길어진다는 서술이 나온다. 이영주본과 김해춘본은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193~228쪽 참고.

7. 삼형제는 동경국을 향해 가다 광양땅에 들어서 과양생이 각시 집에 머물기로 한다.
8. 과양생이 각시는 삼형제가 중인줄 알고 괘시하다가 사정 이야기를 듣고 밥을 내온다.
9. 삼형제가 식사를 마치고 과양생이에게 답례로 진주화수, 명주, 백비단을 가져가니 과양생이 각시가 술상을 차려내며 가지 못하게 한다.
10. 삼형제가 술에 취하자 과양생이 각시가 삼형제 귀에 뜨거운 참기름을 부어 살해한다.
11. 과양생이 각시는 삼형제의 명주, 백비단, 은그릇, 놋그릇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고 남편과 함께 삼형제의 시신을 주천강 연화못에 던져 버린다.
12. 과양생이 각시가 연화못에 다시 가보니 삼색꽃이 떠 있어서 그 꽃을 꺾어 집에 가져와 걸어두자 과양생이 각시의 살을 꽃이 박박 긁는다.
13. 과양생이 각시는 꽃을 손으로 비벼서 숯불에 집어 넣어버리는데, 불을 빌리러 집에 잠시 들른 청태국 마구 할망이 사랑방의 화로에서 불씨를 찾다가 삼색 구슬을 발견한다.
14. 과양생이 각시는 삼색 구슬을 입에 넣어 삼키고 석달이 지나 태기를 느끼고 시간이 지나 하루에 삼형제를 낳는다.
15. 과양생이 아들 삼형제는 15세에 과거를 보러 갔다 돌아와 과양생이 부부 앞에서 절을 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16. 과양생이 각시는 삼형제를 앞 밭에 가매장하여 두고 김칫고을 김치 원님에게 매일 소지를 올린다.
17. 김치 원님은 소지를 처리하기 위해 7일 동안 열 명의 관장에게 입참을 시켰는데, 7일째 되는 날 강림이가 늦게 입참하여 강림의 목에 큰 칼을 찌운다.
18. 강림이가 살려달라고 하자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을지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지 정하라고 한다.
19. 강림이가 큰 부인에게 찾아가자 큰 부인은 떡을 찌서 조왕 할머니에게 올리며 강림의 저승길을 인도해달라고 축원을 올린다.
20. 강림은 큰 부인이 준 저승 복장을 차려입고 원님이 준 저승 증표를 가지

고 저승 가는 길을 떠난다.

21. 강림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막연한 가운데 자신 앞으로 걸어가는 청태산 마구 할망을 따라가다가 그녀와 점심을 같이 먹게 된다.
22. 청태산 마구 할망은 강림에게 자신이 큰 부인의 조왕 할망이라며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23. 강림은 알려준 대로 길을 가다가 또 어느 갈림길로 가야할지 몰라 대성 통곡하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점심을 같이 먹게 된다.
24. 할아버지는 자신이 큰 부인의 집 일문전이라며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25. 강림은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길 보수꾼 길 나장 앞에 떡을 내어놓으니 길보수꾼이 떡을 먹고는 방법을 알려준다.
26. 강림이 염라왕을 밧줄로 결박하니 염라왕이 말갯장자집 전세남굿을 받아먹고 인간 세상에 같이 가자고 한다.
27. 강림이 술을 마시고 자는 중에 염라왕이 사라지자 조왕 할머니가 염라왕이 새 몸으로 환생하였다고 알려준다.
28. 강림이 염라왕이 앉아있는 큰 대를 자르려 하니 염라왕이 먼저 인간 세상에 가 있으면 자신이 곧 가겠다고 말한다.
29. 강림은 염라왕에게 올 때는 마음대로 왔으나 갈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저승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자, 염라대왕이 백 강아지와 도래떡을 내어주고 떡으로 백 강아지를 달래면서 강아지를 따라가라고 한다.
30. 강림은 강아지를 따라가다가 행기뭇에 이르자 강아지가 강림의 목을 물고 행기뭇에 빠지게 되고 강림은 이승에 오게 된다.
31. 큰 부인은 강림이 죽은 줄 알고 3년 상 첫 제사 후 뒷집 김서방과 혼인하려고 했으나 강림과 해후하고, 뒷집 김 서방은 원님에게 달려가 강림이 돌아왔음을 알린다.
32. 원님은 강림을 옥에 가두고 강림과 약속한 시간에 염라왕이 나타나 강림을 찾는다.
33. 강림은 원님을 대신하여 염라왕에게 과양생이 아들 삼형제가 죽은 일을 처리해달라고 하고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부를 불러 아들들을 어디에 매장

했는지 묻는다.

34. 과양생이 부부가 아들들을 매장한 곳에 헤쳐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자 염라왕은 주천강 연못을 세 번 때려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시체를 찾아내고, 이들을 다시 세 번 때려 살려낸다.
35.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살아나 과양생이에게 달려들자 염라왕이 이를 저지하고 과양생이 부부 사지육신을 찢어 각다귀와 모기로 환생시킨다.
36. 염라왕이 원님에게 강림을 나누어 갖자고 하자 원님은 강림의 육신을 갖겠다고 한다.
37. 염라왕은 강림의 혼을 빼어 저승에 가서 나이든 순서대로 저승에 오르는 적폐지를 이승에 붙여두라는 명을 받는다.
38. 강림은 이승 세계로 와서 까마귀를 만나고, 까마귀는 강림에게 자신이 대신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적폐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구렁이가 먹어버리게 된다.
39. 까마귀로 인해 인간은 순서없이 죽게된다.
40. 강림이 염라왕의 분부를 받아 동방삭을 잡기 위해 이승으로 와서 검은 숲을 시냇가에서 쫓고 있자 동방삭이 다가와 숲을 쫓는 연유를 묻는다.
41. 강림이 검은 숲을 백일 쫓어 하얀 숲이 되면 백 가지 약이 된다고 하여 숲을 쫓는다고 하자 동방삭이 자신이 삼천 년을 살아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여 강림이가 동방삭임을 알고 결박하여 저승에 데려온다.
42. 염라왕은 강림에게 인간 차사가 되라고 한다.

이 글에서 죽음 사건이란 실제로 죽음이 일어나는 사건이자 죽음을 의도하거나 죽음이 예견되는 등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지칭한다.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죽음 사건이 등장한다. <바리공주>의 경우, 바리공주 부모의 죽을 병에 걸림, 바리공주를 유기함, 바리공주의 저승행, 어비대왕 부부의 죽음이 있고, <차사본풀이>의 경우, 과양생이 삼형제의 죽음,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죽음, 강림의 저승행, 과양생이 부부의 죽음이 있다. 이러한 죽음 사건들은 한국신화의 죽음관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신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 사건들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겠다.

신화에 나타난 죽음 사건들의 양상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살펴보자면, 바리와 강림이라는 인물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이 저승행을 하게 된 계기로서의 죽음 사건을 문제의 발생으로, 이들의 저승행이라는 죽음 사건을 문제의 해결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리공주를 유기함,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죽음을 발생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어비대왕 부부의 죽음, 과양생이 부부의 죽음을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죽음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 이렇성 구를 적에 세월이 여류하여 아기 십오 세 당지가 되더이다.

양전마마 한날한시에 문안이 지중하여 시녀상궁이 분분하더이다.

대왕마마 일일은 하온 말씀 “옛날에 문복이 영터구나.”¹⁰⁾

(나)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한날 한시에 과거를 떠워, 한날 한시에 죽고 보니, “내 일이어! 내 일이어!”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죽은 자식 과거를 하면 뭇하리, 청일산도 돌아가라. 백일산도 돌아가라.”

다 돌려 보내어 두고 앞 밭에 가매장하여 둔 후, 어느 원에 신원할 수 없어, 과양생이 각시가 김치고을 김치 원님에게 아침이면 아침소지 낮에는 낮소지 저녁이면 저녁소지, 하루에 세 번 석달 열흘 백일을 드려 놓으니, 아홉 상자 반이 넘어간다. 원님도 이 소지 처리를 어찌 할까 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하루 아침 과양생이 각시가 동헌 마당에 나와서, “개 같은 김치원아, 개 같은 김치원아, 이 고을을 붕괴파직하고 어서 나가거라. 다른 원님 놓아서 우리 아들 죽은 소지 처리나 하겠다.”¹¹⁾

10) 이경하(2019), 위의 책, 99쪽.

11)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25~127쪽.

제시된 (가)와 (나)에서는 각각 바리공주의 부모인 어비대왕 부부에게 닥친 죽음 위기와 과양생이 삼형제에게 닥친 갑작스런 죽음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가)의 장면에서 어비대왕은 무당들의 점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혼인과 출산을 해 왔는데, 결국 부부가 깊은 병에 들어서야 무당들의 말이 맞았음을 깨닫는다. 어비대왕은 “천하궁 다지박사 지하궁 가리천문 제석궁 소실애기씨 명도궁 주역천문” 등의 무당들에게 다시 점복을 묻고, “동해는 해가 뜨고 서에는 달이 떨어졌으니 양전마마 한날 승하하시리다. 바리공주 사처를 찾으소서.”라는 답을 듣는다. 바리공주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대왕의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의 꿈에 한 청의동자가 나타나 “하늘 아는 자손을 내다버린 죄”로 그렇게 되었다며 회춘을 위해서는 바리공주 사는 곳을 찾으라고 한다.

(가)에서 〈바리공주〉의 어비대왕이 점복과 꿈을 통해 자신이 바리를 버린 일로 인해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것과 달리 (나)에서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는 아들 삼형제가 급사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그저 슬피 울부짖으며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라고 한다. 어비대왕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자로 바리가 호출되는 것처럼 과양생이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해결자로서 강림이가 호출된다. 어비대왕의 신하들이나 여섯 딸들이 어비대왕을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나 강림이가 저승행이 확정되었을 때 절망하며 큰 부인을 찾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저승행은 곧 인간적인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 남가일몽을 깨달으시고 계하에 신하를 불러들여

“약수 얻어다가 나를 회춘하게 할 신하가 있는가?”하옵시니

신하들이 읊하여 왈 “웬 말씀이시옵니까?

동해용왕도 용궁이웁고

서해용왕도 천궁이웁고

봉래방장 무장승의 약려수 수용궁이온데
살아 육신은 못 가옵고 죽어 혼백이 가는 세상이온데 거행하올 신하 없
나이다.”¹²⁾

(라) 강림이 저승복장으로 차리니 저승차림이 완전합니다. 남방사주 봉에바
지, 백방사주 저고리, 자주명주 통행전, 백룡버선, 섬송메미토리 백지로 들
메를 메고 한산모시 두루마기에 남수화주 적패자, 훈문대단 안을 받치고,
들소의 털 흑두전립에 허울거리는 상모하며, 밀화패영 늘어뜨리고, 굴망
굴깃의 허울거리는 깃, 관장패를 등에 지고, 앞에는 날렐 용자 뒤에는 임
금 왕자 홍사줄은 옆에 차고, 적패지는 옷고름에 채워 문앞에 내세우니
저승 차림이 완전합니다.¹³⁾

(다)에서 어비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자신의 병을 고칠 약수를 구할 신하
를 찾지만, 신하의 말대로 그곳은 “살아 육신은 못가고 죽은 혼백이 가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바리가 남장(男裝)을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나서야 하는 저승길은 곧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는 강림이
김치 원님의 꺾에 걸려들어 저승에 가게 되자 이에 절망하며 자신의 본부
인을 찾아가게 되고 부인이 만들어준 저승 의복을 입는 장면이다. 이 저승
의복은 수의를 의미한다. 이 장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공주와 강림의
저승행은 모험을 의미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마) “양전마마 한날 한시 승하하옵서 인산거동이로소이다.”

명정 삼선 돌아보니 ‘임금 왕자 뚜렷하다.

그제야 머리 풀러 발상하고 무장승은 감추오고 일곱아들 감추고 소여꾼
물리치고 대여꾼 무리치고 다목을 돋우어 피고 앞 매 일곱, 바깥 매 일곱

12) 이경하(2019), 위의 책, 103~104쪽.

13)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33~135쪽.

소대림 매를 풀어 좌수우수로 편안히 하옵시니 조정백관들은 아래로 시위하고 시녀상궁들은 장 안으로 들라 하고 약려수는 입에 넣고, 개안주는 품에 넣고, 벽이용은 눈에 넣으니 양전마마 일시에 일어나 앉으시며 “잠결이나 꿈결이나, 상임 뜯은 무슨 일이나? 앞바다 구경하러 왔느냐, 뒷동산 꽃구경 왔느냐?” 하옵시니 조정백관 아뢰오되 “버렸던 자손이 약수를 얻으러 갔다가 양전마마 회춘하셨나이다.”¹⁴⁾

(바) 염라왕이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을 세 번째리니 주천강 연못이 바싹 잿아져 마른 먼지가 나옴이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는 뼈만 살그람이 남아 있으니 차례차례 모아 놓고, 염라왕이 금부채로 세 번을 때리니, 삼형제가, “아이고 봄 잠이라 늦게 잤습니다.”

벌떡 일어나니, 과양생이 부부간을 불러다가, “이것이 너의 아들 삼형제나?”

“예, 우리 아들 삼형제와 꼭 같습니다.”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활 받아라, 칼 받아라, 죽일 판으로 덤벼들어 가니, 염라왕이 말을 하되, “원수는 내가 갚아 주마. 아버지 어머니를 어서 찾아 가져라.”

과양생이 부부간 팔 다리 아홉에 소를 묶어 목자를 시켜 동서로 몰아가라 하니, 과양생이 부부간이 아홉조각으로 찢어진다. 찢어지다 남은 것은 방아에 넣어 독독 빵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살아 있던 때도 남의 피만 빨아먹자고 하던 과양생이 부부간은 죽어도 남의 피를 빨아 먹자고 각다귀, 모기똥으로 환생함이다.¹⁵⁾

(마)에서 제시된 내용은 바리공주가 무장승 밑에서 일하고 무장승의 원대로 혼인하고 자식을 낳느라 시간이 늦어져 부모님에게로 돌아왔으나 이미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바리공주는 자신이 가져온 약려수,

14)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30쪽.

15)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63~165쪽.

개안주, 백이룡을 통해 어비대왕 부부를 회생시킨다. 부부는 마치 잠에서 깬 듯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변한다.

(바)에서 제시된 내용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과양생이 삼형제의 죽음의 원인을 염라왕이 밝혀내는 장면이다. 과양생이 삼형제의 죽음은 과양생이 각시가 버무왕 삼형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식을 유기한 죄로 죽음에 이른 어비대왕 부부는 피해당사자인 바리공주가 부모를 위해 저승길에 오르고 약려수를 가져다주기로 하면서 그녀의 희생과 용서를 통해 죽음에서 회생할 수 있었다. 반면 과양생이 부부의 경우, 염라왕은 버무왕 삼형제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고 과양생이 부부의 사지육신을 찢어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서는 죽고 각다귀와 모기로 환생한다.

3. 신화 속 죽음의 구성원리와 그 의미

앞서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를 구성하는 죽음 사건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신화의 죽음 사건은 ‘문제의 발생’,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결과’로 구성되는 하나의 체계 아래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죽음 사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나타나는 서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신화 속 죽음의 구성원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의 서사는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바리공주와 강림의 저승행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죽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저승행에서 나타난 다양한 일들, 저승에 대한 묘사보다는 서사를 이루는 ‘죽음’이라는 사건들과 사건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바리공주와 강림의 저승행은 이 둘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승에 가는 즉, 수단적 죽음을 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죽음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 사건으로서 저승행을 바라보고자 한다.

두 신화의 중요한 서사축에서 바리공주 부모님의 죽을 위기와 과양생이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문제의 발생”은 어비 대왕 부부와 과양생이가 자신에게 닥친 죽음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함을 말한다.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해결의 결과는 ‘삶의(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바리공주의 부모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점복이나 청의동자를 통해 분명히 제시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그것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유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양생이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도 어린 버무왕 삼형제를 과양생이 각시가 살해하고, 부부가 그 시체를 연못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죽음은 바리공주의 부모와 과양생이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받은 징벌로서 역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죽음의 위기(어비대왕 부부)나 갑작스런 죽음(과양생이 자식의 죽음)은 아직 해결의 주체들이 등장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서사적 진행을 위한 징후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죽음 사건으로 인해 환생을 바라는 서사적 상태 주체의 욕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 주체가 호출됨으로써 서사가 추동되므로 이 두 죽음 혹은 죽음의 위기는 징후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죽음 사건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징벌적 죽음의 논리는 무엇일까. 이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게 하고 올바르게 행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마음가짐¹⁶⁾이다. 또한 정의는 대인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함을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행사하는 사람이고,

16)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72쪽.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미덕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사하는 것이라 했다¹⁷⁾ 또한,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으나 악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과오이고,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할 때는 불의하고 사악한 것¹⁸⁾이라고 한다. 정의와 불의의 기준에서 ‘이익’이라는 척도는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칠 경우가 불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징벌적 죽음은 신화적 세계 안에서의 ‘시정적 정의’¹⁹⁾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의 한 하위 항목으로서 분배적 정의와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각 개인에게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분배할 때 그것이 각자의 공적에 따라 분배되고 각자의 공적의 비율이 각자에게 분배된 공동재산의 비율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때의 재산에는 물질적인 가치를 갖는 재화뿐 아니라 인격적, 사회적 가치가 모두 포함된다.²⁰⁾ 이와 비교하여 시정적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의 이득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이득과 손해를 시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²¹⁾ 살인을 한 경우 가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피해자의 손실과 가해자의 손실을 일치시키는 것도 시정적 정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²⁾

17)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180쪽.

18) 현용준·현승환(1996), 위의 책, 204쪽.

19) 정의는 크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지며, 특수한 정의는 일반적 정의안에 포함된다. 특수한 정의를 구성하는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호혜적 정의 등은 모두 일반적 정의의 하위범주로서 특정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일반적 정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공법연구』 30(2), 한국공법학회, 2001, 74쪽 참고.

20) 한상수(2011), 위의 논문, 277쪽.

21) 한상수(2011), 위의 논문, 280쪽.

22) 한상수(2011), 위의 논문, 282쪽.

이러한 정의 개념에 따라 죽음 사건을 살펴보자면, 바리공주의 부모가 자식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과오이고, 과양생이가 욕심에 의해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불의하고 사악한 것이 된다. 이 같은 분별은 바리 공주의 부모가 비록 죽음에 이르렀지만, 바리 공주의 구약여행을 통해 용서받고 환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과양생이 부부는 끝내 자신의 죄에 대한 벌로서 똑같이 찢겨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신화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필연성을 담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화적 세계가 이처럼 죽음에 징벌성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화적 세계는 죽음의 부정(不定)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고 있으며, 저승의 판결을 통한 생명의 엄중함을 경고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의 부정이란 죽음이 확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한다.

신화는 징후적 죽음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수단적 죽음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징후적 죽음이 결국 징벌적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로서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의 원인을 해결해나가는 해결의 주체 자격이 부여된 신격을 해설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징벌적 죽음의 기회를 수단적 죽음으로써 마련하여 이를 해결해나가는 신화적 논리에는 신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행위에 인간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에 맞게 상벌을 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망자를 인도하는 신의 기능 자체는 수단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이승에서 행한 일에 저승법을 적용시킬수 있도록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즉 경계자로서 자기 스스로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며 그 경계로서의 역할은 죄를 지은 인간

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더욱 뚜렷해진다.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논리를 부여하고 삶에서 죽음으로의 연결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나 ‘상실’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또한, 삶의 끝으로서의 죽음을 인식하기 보다는 삶의 매 순간에 죽음(의 징벌성)을 떠올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신화에서의 이러한 죽음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생의 종국이라기보다는 모든 생의 국면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생의 한 차원으로서 죽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²³⁾ 신화적 세계 안에서 징벌적 죽음을 통해서 넓게는 ‘옳고 그름의 판별’이자 구체적으로는 ‘시정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승과 달리 저승은 ‘맑고 엄정한 법’²⁴⁾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고, 이승은 이러한 저승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지만, 죽음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저지른 일의 옳고 그름을 판정받고 이승에서 일어난 혼란과 무질서한 사건들이 바로잡혀지는 계기가 된다. 신화적 세계 안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망자와 경계자들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심판의 장(場) 안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은 연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말 왕사를 지낸 요원의 『법화영험전』에는 이미 망자가 된 이들이 살아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여 법화경을 베껴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환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이룬다.²⁵⁾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에서 이루어지는 ‘회생’에서 불교적 환생의 기시감이 느껴지

23) 구인회,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철학탐구」 16,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4, 64쪽.

24) “천지왕본풀이”, 현용준·현승환(1996), 앞의 책, 19~23쪽.

25) 요원, 오지연 역, 『법화영험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는 것을 통해 이러한 죽음의 모습은 불교의 윤회와 환생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신화에서 인간은 모두 생래적 고통을 가진 존재로 이해된다. 신화적 세계 안에서 인간의 죽음이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면, 인간의 생은 이미 자신의 고통과 한계를 운명지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는 부모의 ‘욕망’에 의해서 낳게 된 아이이다. 바리공주를 낳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이들’을 보겠다는 부모의 욕망은 딸을 일곱이나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그 화살을 딸에게로 돌리는 죄를 범한다. 바리공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버려졌으며 이후 인간적 죽음을 감수하면서 부모를 위해 구약여행을 떠나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차사본풀이>의 버무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일찍 죽게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지나가던 스님을 통해 알게 된다. 버무왕은 그 생을 조금 더 잇게 할 요량으로 스님에게로 아들들을 보내 세상과 단절하여 살도록 하지만, 절에 살던 아들들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결국 부모를 만나러 오던 중 죽게 된다. 이후에 되살아났다 하더라도 버무왕 아들들에게 주어진 생래적 고통으로서의 죽음은 버무왕과 그 지손들에게 늘 전전공공하며 살아야 하고, 서로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을 주었으며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 맥락에서 신화적 세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난 폭력적 죽음은 구원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을 이끌어 낸다. <바리공주>의 바리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번째 딸임에 화가 난 아버지에 의해 옥함에 갇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를 버린 일은 그 행위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순간적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폭력적이다. <차사본풀이>의 버무왕 삼형제의 타고난 운명은 15세까지만 사는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과양생이 각시의 욕망으로 인해 삼형제 살해를 운명적 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어린아이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잠든 사이에

살해한 것은 그 죽음에 폭력성을 덧입힌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죽음에 대해 신화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을 구원한다.

바리 영아 유기는 바리가 궁궐 밖의 더 큰 세상에서 자라나도록 하여 스스로 부모에게 돌아오게 하는 용서와 희생의 깊이를 심화시켰으므로 고통은 그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버무왕 삼형제 역시 죽음 이후 염라왕에 의해 환생하는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기고, 낯선 사람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한 미숙함을 죽음의 경험을 통한 성숙함으로써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화는 이처럼 폭력적 죽음에 대해, 바리 공주는 석가세존과 비리공덕 부부라는 궁궐 밖 조력자를 통해 구원받게 하고, 버무왕 삼형제는 염라왕을 통한 환생으로 구원받게 하고 있으나 과양생이 각시의 아들 삼형제의 생은 서사에서 삭제시킨다. 그들은 과거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부모 앞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으나 끝내 환생되지 못한다. 그들의 탄생에 이미 깊은 징벌의 의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 신화에 나타난 죽음 사건의 양상과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경우 징후적 죽음은 폭력적 죽음이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난 징벌적 죽음이다. 이는 수단적 죽음을 통해 해결되어 환생으로 구원받는다. <차사본풀이>에 나타난 징후적 죽음 역시 폭력적 죽음에 대한 징벌적 죽음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단적 죽음을 통해 밝혀지고 폭력적 죽음의 가해자는 징벌적 죽음을 맞이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인간은 죽음에서 삶의 상태로 변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그 죄값으로서 끝내 삶에서 죽음의 상태로 변한다는 징벌적 죽음의 관점에서 죽음은 '정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적 죽음은 인간적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점에서 죽음은 '성장'의 의미를 갖는다. 어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죄값으로 어비대왕 부부와 과

양생이 부부는 죽음을 받게 되지만, 결국 과양생이 부부의 아들 삼형제만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신화에서 죽음의 징벌적 특성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도 신화 속 죽음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로 환원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어난 수단적 죽음을 통해 인간적 존재가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죽음은 ‘존재론적 변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사건 양상	문제의 발생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결과
바리공주	어비대왕 부부가 죽을 병에 걸림	바리공주를 유기함	바리공주의 저승행	어비대왕 부부의 죽음(이후 환생)
차사본풀이	과양생이 삼형제의 죽음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죽음	강림의 저승행	과양생이 부부의 죽음
서사적 의미	징후적 죽음	폭력적 죽음	수단적 죽음	징벌적 죽음

<표1. 죽음 사건의 양상과 서사적 의미>

4. 결론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스틱스 강이 흐르며 이 강을 이동하는 뱃사공 카론만이 이승과 저승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카론은 스틱스강 안에 멈춰있는 존재이다. 반면 한국 신화에서 신적 존재들은 경계를 이월(移越)하는 자들로서 이승과 저승을 이동한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리공주>의 바리와 <차사본풀이>의 강림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들의 모험과 타계 여행을 대상으로 신화적 의미와 저승 의식을 고찰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신화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죽음 사건의 발생 양상과 죽음 사건 간의 관계 즉 인간적

죽음과 이를 해결하려는 신적 죽음의 교차를 통해 한국 신화의 죽음관을 고찰하고자 했다. 신화적 세계 속 인간적 죽음은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이자 성장을 위한 관문이다. 반면 신적 죽음은 인간적 죽음의 원인을 살피고 문제로서의 죽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자 신이 되기 위한 존재론적 변화의 계기이다.

구체적으로, 무속 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나 삶과 죽음이라는 사건이 구성되는 원리에 ‘정의’ 관념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의 살아생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옳은 행동을 해야 하며 개인의 욕심으로 타인을 해하는 경우 죽음으로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신화 속 삶과 죽음은 인과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이루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속 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에 나타난 징후적 죽음, 수단적 죽음, 폭력적 죽음, 징벌적 죽음 그리고 환생의 순환 구조는 무속 신화의 세계가 다양한 죽음 사건의 발생과 그 관계성을 통해 정의의 기원을 풀어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경하, 「말미(바리公主)」, 『바리공주/바리데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5~141쪽.

현용준·현승환 역주, 「차사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8~171쪽.

2. 논문 및 단행본

강봉수,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4, 제주학회, 2003, 29~83쪽.

강지연·오세정,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 연구」,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3~181쪽.

강진욱, 「〈차사본풀이〉연구-강림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5~36쪽.

권복순,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맹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배달말』 54, 배달말학회, 2014, 53~80쪽.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지수 역,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바다출판사, 2017, 1~446쪽.

구인회,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한길사, 2015, 1~324쪽.

김영민, 「바리공주 巫歌에 나타난 靈肉觀과 저승관」, 『문화연구』 7, 한국문화학회, 2002, 15~32쪽.

류정일, 「무속신화의 젠더화된 죽음관과 위무의 두 가지 방식-〈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69~99쪽.

마이클 샌델, 김명철 역,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1~443쪽.

박선경, 「한국인의 죽음관1 - 신화, 전설에 나타난 죽음의 상징」, 『한국문화이론과비평』 5,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1999, 117~134쪽.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숲, 2022, 1~410쪽.

유선영, 「〈바리공주〉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죽음관」, 『한국문화연구』 13, 경희대민속학연구소, 2008, 141~169쪽.

요원, 오지연 역, 『법화영험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1~264쪽.

정재호, 「관북지역〈바리공주〉의 ‘죽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25, 2012, 7

~42쪽.

- 진성기, 「차사본」,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193~228쪽.
-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韓國民俗學』 29, 民俗學會, 1997, 223~246쪽.
-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공법연구』 30(2), 한국공법학회, 2001, 269~285쪽.
- 한양하, 「서사무가에서 정벌의 의미 연구-제주도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동양 문화연구』 29,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8, 185~213쪽.
- 홍태한, 「서울 진오기굿〈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05~133쪽.

ABSTRACT

Death events and their meaning in Korean mythology
- Focusing on 〈Princess Bari〉 and 〈Chasabonpuri〉

Kim, Sin-jeong

In Greek mythology, the human world and the afterlife are strictly separated. On the other hand, in Korean mythology, gods appear between this world and the afterlife. Representative entities include Bari from 〈Princess Bari〉 and Ganglim from 〈Chasabonpuri〉. Previous studies mainly looked at the mythological meanings and perspectives on the underworld/death shown in these people's underworld adventures and travel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view of death in Korean mythology through the occurrence of various death incidents in mythological tex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incidents, that is, the intersection of human death and divine death that seeks to resolve it. Human death in the mythical world is God's punishment for humans and a gateway to growth. On the other hand, divine death is a way to examine the cause of human death and solve death as a problem, and is an opportunity for ontological change to become a god.

Specifically, the shamanic myths 〈Chasabonpuri〉 and 〈Princess Bari〉 give the concept of 'justice' to the continuity of life and death or the principle by which the events of life and death are composed. During human life, one must act righteously based on the standards of right and wrong, and if one is greedy,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death.

In this process, we can see that life and death are causal and cyclical, and are linked to concerns about how humans should live. The aspects of death that appear in the shamanic myths 〈Princess Bari〉 and 〈Chasabonpuri〉, such as violent death, punitive death, and instrumental death, are a world of shamanic mythology that unravels the origin of

justice through the occurrence of various death incidents and their relationships. It tells you that you are paying.

Key Words <Princess Bari>, <Chasabonpuri>, the occurrence of various death incidents and their relationships, the origin of justice, the view of death in Korean mythology

논문투고일: 2024.01.15.

심사완료일: 2024.02.04.

게재확정일: 2024.02.07.